

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9. 1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네덜란드, 테러 단체 가입 및 선동 혐의로 10대 2명 구금
 - 9.5 언론은 네덜란드 검찰청이 16세, 18세 소년을 포함한 네덜란드인 3명을 우익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The Base*에 가입 혐의와 다른 사람들에게 테러 공격을 가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구금하였다고 보도
 - * 백인 민족 국가 설립을 위해 무기·폭발물 테러 기술을 활용하여 유럽·미국 등에서 테러를 모의·자행 중인 조직으로 '24년 7월 유럽연합이 테러 단체로 지정
- 유럽, 테러에 연루되고 있는 미성년자 증가(NLTIMES)
 - 9.7 언론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親테러 영상에 노출되며 테러리즘과 급진화 영향을 받은 미성년자들이 테러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도
 - ※ 유로폴은 지난 6개월 동안 체포된 테러 용의자 61명 중 3분의 2가 19세 미만이었으며 가장 어린 테러 용의자 중 한 명은 14세라고 부언

미주

- 美·EU, 'AI활용'관련 법적 구속력 갖춘 첫 국제조약 서명
 - 9.5 언론은 美·EU·英 등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인 '유럽 회의 AI 조약'에 서명했으며 同 조약은 AI시스템의 유해한 결과에 대한 책임 규정과 피해자 구제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일각에서는 해당 조약이 벌금 등 조약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과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으로 판단하는 약한 집행 형태 등을 한계로 지적
- 美·캐나다, 뉴욕 테러 계획 혐의 용의자 체포(BBC)
 - 9.7 언론은 美 FBI와 캐나다 경찰이 ISIS를 지지하며 뉴욕시의 유대인 센터를 총기 테러하려던 20세 파키스탄 국적의 남자를 체포, 외국 테러 조직에 물질적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려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
 - ※ 용의자는 "9·11테러 이후 美영토에서 가장 큰 테러가 될 것"이라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10월 7일이나 옴 키푸르에 맞춰 총기 테러를 계획

중 동

- 이스라엘, 가자 난민촌 미사일 폭격으로 100여 명 사상
 - 9.10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구역 내 난민촌을 폭격하여 40명이 죽고 60명이 다쳤다고 보도하였으며, 하마스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내 사망자는 4만 1천명에 육박한다고 비판
 - ※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으며, 하마스가 테러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인과 인도주의 시설들을 지속해서 구조적으로 악용한다고 반박

아 · 태평양

- 파키스탄, 自國內 활동중인 테러리스트 30명 이상 체포
 - 9.7 언론은 파키스탄 편잡주 경찰이 알카에다를 포함한 국제 테러 단체에 소속된 테러범 33명을 체포했으며, 현장에서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, 수류탄, IED 폭탄 및 기폭장치 등을 회수했다고 보도
 - ※ 경찰은 同 지역의 테러범을 체포하기 위해 지난주 475건의 대테러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
- 이라크, 美 연준시스템 이용 이란 송금의혹
 - 9.9 언론은 「알 안사리」 은행 등 이라크 은행들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후 구축한 임시금융시스템*을 이용해 이란혁명수비대, 하마스, 헤즈볼라 등에 달러를 송금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
 - * 同 시스템은 이라크의 석유판매 수입을 美 연준에서 보관 후 이라크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던 시스템으로 이라크 은행들은 위조 송장 등을 통한 돈세탁에 이용

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, 테러리스트 152명 사살
 - 9.9 외신은 나이지리아 군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여 일주일만에 보코하람과 ISWAP 테러리스트 152명을 사살하였고, 여성 몸값 협상자 2명을 체포하였다고 보도
 - * 同人은 테러리스트가 납치한 사람의 가족 및 친척과 몸값 협상을 담당했었다 부언

'72년 독일 뮌헨 올림픽 인질테러

- '72.9.5 뮌헨 올림픽 기간 중 「검은 9월단」(팔레스타인 무장괴한)이 이스라엘 선수촌에 난입하여 코치 등 2명을 살해하고, 9명을 납치
- 이후 이들은 이스라엘에 수감된 '팔레스타인 죄수 석방'을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하였으나, 독일의 작전*으로 사살(5명)되거나 체포(3명)

- <1차작전> 특수부대가 아닌 경찰을 선수로 위장시켜 진압작전에 투입했으나, TV 생중계로 이들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실패(당시 테러 진압 경험 全無)
- <2차작전> 항공기를 통한 테러범들의 탈출에 합의하는 척하면서 이동과정(헬기→비행기)에서 인질 구출을 계획했으나, 테러범들이 눈치채 상호 총격전

- 다만, 이 과정에서 인질범도 전원 사망하면서 인질구출 작전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노출, 독일(GSG-9)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테러부대 창설의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평가
 - 한편, 지난 9.5 '뮌헨 테러' 52주기일에 獨 이스라엘 공관 인근에서 ISIS를 추종하는 10대가 총기를 난사하여 경찰이 사살한 사건 발생
 - 獨 당국은 용의자 휴대폰에서 IS 선전문 확인, '이번 사건을 테러 미수로 간주하고 反유대주의와의 연관성 등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'고 부언
- ⇒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時 안전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, 역사적인 테러 사건일을 겨냥한 극단주의 개인·단체의 테러 위협 대비 필요

< GSG-9 >

- (창설 배경) '72년 9.5 뮌헨올림픽 참사를 계기로 제9국경수비단으로 창설('74.9.26), 이후 '05년 7.1부터 연방경찰 GSG-9으로 개칭
- (규모·임무) 약 400명, 국내외 대테러 임무 및 법집행
- (무기·장비) 권총, 산탄총, 기관단총, 지정사수소총, 유탄발사기, 기관총, 비살상무기(테이저건)
- (주요 활동) '77년 독일 항공기 납치 사건에서 승객 전원을 구출하면서 이름을 알림